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광야에서 부르심

출애굽기 3장 1-5절.

1.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2.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3.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 때에
4.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늘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3대 부르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는 이사야 6장에서 거룩하심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던 이야기.

다른 하나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만남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선행지식이 있습니다. 모세에 대하여 좀더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출애굽기 1장에서 당시 시대상을 설명하고 본격적으로 2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 애굽에 있던 유대인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3달 동안이나 갓난아이였던 모세를 숨겨 두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아이를 가지면 배가 불러오고, 무엇보다 애굽 왕의 명령으로 산파가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갓난아이를 석 달이나 숨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출 1장 15-16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싹브라라 하는 사람과 푸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피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모세를 살려 석 달 동안 숨겨 두었던 단서는 오로지 ‘잘 생겨서’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토브’라는 말이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데 영어의 ‘good’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요즘 사람들의 사고로 ‘잘생겼으니 좋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가장 개연성 있는 해석은 이런 것입니다.

“모세가 산파가 계산하고 있었던 기간 보다 석 달 일찍 미숙아로 태어났으나 ‘토브’ 즉 건강해서 숨겨둘 수 있었다”는 말이죠.

요즘 같은 세상에서야 석 달 먼저 태어나도 살리는 것이 다반사지만, 당시 고대 국가에서 석 달 먼저 태어나 ‘건강했다’는 것은 가히 기적 같은 일입니다.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미숙아로 태어난 자식이 건강한 것을 보고 분명 하나님이 보내신 아이라 생각해 몰래 숨겨 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석 달이지나 산파들이 들이닥치면 죽여야 할 터이니, 요게벳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손에 아이를 맡기고 나일강 가에서 갈대상자를 만들어 떠내려 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손을 떠나 하나님 손에 자식을 전적으로 맡기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미숙아로 태어나 참 서글픈 사연을 지닌 아이로 석 달 만에 나일강에 흘러 보낸 아이입니다. 이제 어머니가 지켜줄 수 없는 버림받는 아이가 되었으니,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아이가 된 것이죠.

이제 출애굽기 2장 5-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 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yeled*)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naar*)로다

성경 원어에 보면 강으로 내려오는 아기 모세를 바로의 딸이 건져내는 장면에서 다른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하는 ‘아기’가 등장합니다.

똑 같은 ‘아기’인데, ‘엘레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기고, ‘나아르’는 십 대 소년부터 청년에 이르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왜 이렇게 다른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바로의 딸이 떠 내려오는 갈대 상자를 열어보고 ‘아기’를 발견합니다. ‘울고 있는’ 아기였죠. 그런데 그 아이가 우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갈대상자를 열어보고서야 알게 됩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아이가 병어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리를 내지 않고 울고 있었습니다. 단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랍비를 지낸 메어 라우 (Yisrael Meir Lau) 홀로코스트 당시 폴란드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숨어지내던 때, 낯선 사람들이 집으로 들이닥치면 그의 어머니는 아들을 다락에 숨겼고, 그 때마다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입을 막았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리를 내면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때 그의 경험을 통해 랍비는 모세가 왜 소리내지 않고 눈물만 흘렸는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갓난 아이 모세가 울 때면, 엄마 요게벳은 어떻게 해서든지 소리가 나지 않도록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일 강에 떠내려가는 순간에도 본능적으로 이 아이는 소리를 내지 못하고 울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처럼, 모세의 어머니는 얼마나 비통한 심정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갈대상자를 물에 띄웠을까요?

아마도 이 여인의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께 살려달라는 기도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나일강에서 건짐 받은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됩니다.

궁중에서 왕이 갖추어야 할 리더십을 배우고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신분에서 오는 '정제성의 혼란'이 그를 무척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느날 히브리인과 애굽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고, 자기 동족을 도와 살인을 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바로의 행동을 보면 모세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듯합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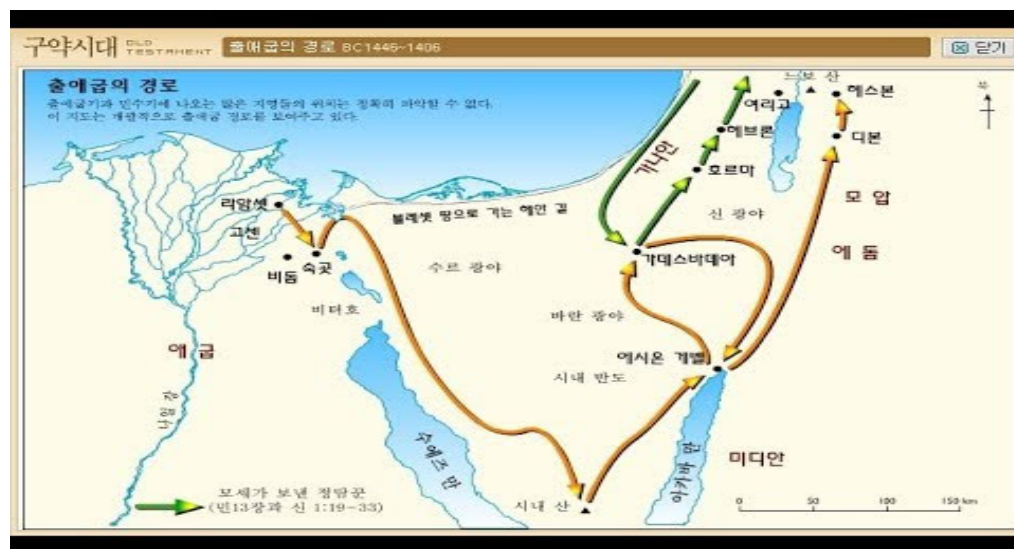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느니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왕국의 권력지형에서 모세는 제거되어야 하는 인물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냥 죽은 듯이 왕궁에서 지내면 편하게 살지 모르지만, 또한 그렇게 살 수 없는 성격의 소유자가 모세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같은 그의 성격으로 인해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래 지도를 보세요, 그가 살고 있던 애굽과 미디안이 얼마나 먼 곳인지.

“잊혀진 세월, 잊혀진 사람.”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모세의 형편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하는 말이 없을 듯합니다.

그가 미디안에서 했던 일은 양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하찮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배우고 힘써왔던 삶이 모두 부정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태어나면서 강에 버려진 아이였고,

궁중에서도 바로의 딸이었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거나, 권력구조에서 변방으로 밀려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궁중에서 'somebody' 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는 동안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nobody'되어 버렸습니다.

아마도 오늘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요?
“나는 지금 여기서 이려고 살 사람이 아닌데~~”라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더욱 의미가 없고 비참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상황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광야’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의 가장 비참함을 드러내는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1.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40년이나 미디안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아직도 그에게는 ‘자기 양’이 아니라 ‘이드로의 양 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 내면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아직도 그 회사에서 그 자리 밖에, 아직도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아직도 자기 집이 아니고 전세로, 아직도 취직도 못하고 취준생으로, 아직도 자식이 그 모양이야, 아직도 결혼 못하고. . .”

우리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게 들리는 소리들입니다.

기억할 것도 없고, 누구도 알아 줄 것도 없는 인생, 그래서 투명인간 같은 존재로 ‘잊혀진 광야’에 있는 인생 말이죠.

그런데 잊혀진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셨던 모양입니다.

이제 우리가 당시 상황을 상상하면서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 부르심에 모세가 감격해서 울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모세의 마음에서 감동보다 원망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아니, 40년을 기다리게 하시다니 이건 좀 너무 하신 것 아닌가요? 출애굽기 3장 10-11절을 보세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 대화를 들어보세요. 모세는 전혀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격하지도 흔쾌히 응하지도 않았습다. 40년을 양을 치며 살았으니, 그의 삶의 열정도 다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40년을 기다리신 이유는 모세의 격한 성질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은 아닐까?

하지만 모세의 성격이 변하기에는 40년의 세월을 가지고도 해결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자기 성질을 못이겨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린 사람이었으니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의 성격을 가다듬거나, 그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가 되었다는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한 출애굽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모세를 미디안으로 보내셨습니다.

모세의 생명을 노리던 자가 죽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모세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초라한 곳에 초라하게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곳, 그리고 그 장면을 가만히 드러다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2 여호와와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양을 치다 희귀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말 성경에는 ‘떨기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NIV 성경에는 ‘bush’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덤불’쯤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시내산을 다녀온 사람이라면 ‘나무’라는 말 보다는 ‘덤불’이라는 말이 훨씬 더 어울리는 단어라는 것에 금세 동의할 것 같습니다.

지금 모세가 처한 환경이 초라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장면도 그렇게 장엄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저 상상하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모습은 커다란 노송이 활활 타는 가운데 보여야 제격이 아닐까요? 그 위엄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훨씬 더 멋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미디안광야에 있는 가시덤불은 아무리 커도 1m를 넘지 않는 크기입니다.

모세의 초라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부르심 역시 초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더듬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장면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위 세계의 3대 회심으로 불리는 사건들 말입니다.

사도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달려가다 길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유명한 어거스틴은 그저 정원을 거닐다가 ‘성경을 읽어라’라는 음성을 듣고 서재에 들어가 펼쳐진 성경을 읽다가 말씀 앞에 거꾸러지는 체험을 합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로 기억하는 마르틴 루터도 젊은 수도사시절 비텐베르크에 있는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소위 ‘탑 체험’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수도원에 있는 작은 그의 연구실이 있었던 탑에서 일어난 회심의 사건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는 길을 걷다가 작은 모임에서 들려오는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소리를 듣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1904년 웨일즈에 있었던 부흥운동은 당시 수개월 만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영적 부흥운동이었습니다. 이 부흥 운동의 주역은 이반 로버츠라는 청년이었고 어느 수요일 저녁 17명이 모인 작은 수요일 집회에서 설교하다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기도예 헌신하며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잊혀진 광야에서 살고 있는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우리가 낯설게 느끼는 것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환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이 포기된 곳에서 하나님은 가장 긴밀하게 우리의 삶을 파고 들어오시는 분인데 말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임재가 참 다르다는 생각이 들죠.

우리가 초라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임재’는 초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그의 계획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대로 되어진 인생입니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양을 치면서 자신이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지도자가 되리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모세는 광야에서 리더로서의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양을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애굽을 떠나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세의 리더십은 교실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그가 살고 있던 광야에서 배우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풀려나갑니다.

광야를 아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앞에 까지 왔지만, 가나안땅은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에서도 모세가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역부족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미 40년 전에 그 땅을 정탐하고 지도를 그렸던 인물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가나안의 지도를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가 가장 적격이 아니었을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광야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 잊혀진 곳에서 지나는 동안에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잊혀진 존재로 외롭게 살았던 광야의 시간이 모세에게 상처가 아니라, 쓰임 받는 훈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 말입니다.

가나안을 앞에 두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이 전혀 패배로 느껴지거나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어쩌면 모세 자신이 왜 거기에서 멈춰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느보산에서의 죽음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이제 가나안은 다른 사람이 사명의 배턴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잊혀진 사람 모세의 신을 벗기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소명의 장소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유명한 장면은 바로 5절입니다.

5.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에서 ‘신’은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네 발의 신’이라는 말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신’이라고 해도 될 것을 왜 ‘네 발의 신’이라고 했을까요?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냥 ‘신을 벗어’라고 했다면 일반적 명령으로 들렸을 것 같은데,

‘네 발의 신’이라고 말하는 순간 아주 개인적이고 주관적 명령으로 들리니 말입니다.

잠시만 생각해도 모세에게 ‘신’이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시내산은 ‘돌산’이니, 신을 신어야 자신을 보해해 준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 낮이면 뜨겁게 달궜진 모래에서 보호해주는 신입니다.

또한 모래발을 걸을 때, 맨발로 다니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발가락 사이로 모래가 스며들어 오면 속도를 낼 수도 없습니다.

신을 벗는 순간 그의 인생의 속도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이 아니었을까요?

이제 모세는 그가 생각하고 주장하는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맞추어 가고 서고를 반복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던 최효섭목사님의 책 중에 [시속 3마일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오래 전에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속도는 인간이 광야를 걷는 속도에 하나님이 맞추어 주셨다는 의미가 되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던 하나님의 속도이기도 합니다.

다른 하나는, 신을 벗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의식하지 못했던 ‘거룩’이 그의 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내려 놓으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걸어왔던 시간과 과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신’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모든 것들은 벗어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 인간들이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이 신을 벗는 일입니다.

다시 조금 전에 나누었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모세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신명기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의 ‘눈과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

고 있습니다.

제 느낌이 그런가요?

왜지 평온하게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모세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 미련을 가진 듯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고생하며 걸어왔던 발자취와 가나안 땅이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였을까요?

하나님께서 40년의 시간을 통해 눈에 보이는 가나안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나안’을 보도록 훈련시키신 것이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가나안 땅 말입니다.

모세의 평안함은 진정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한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탐에서 벼락맞을 종교개혁자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유모로 들어간 친어머니가 모세에게

이

이 부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아주 흥미로운 부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